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21일 뉴욕증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IBM의 실적전망이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인하여 급등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79.01p(3.51%) 상승한 8,228.10에 장을 마감.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35.02p(4.35%) 오른 840.24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12p(4.60%) 오른 1,507.07을 기록.

이날 증시는 어제 폭락하였던 금융주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새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며 상승 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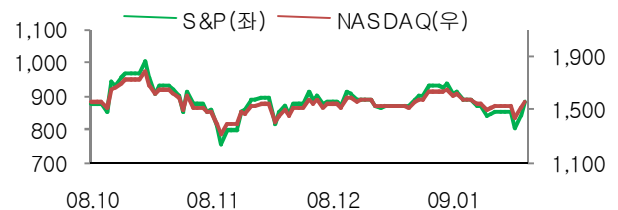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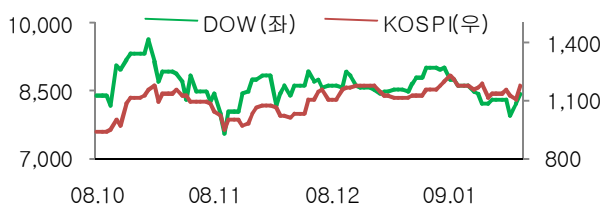
800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주가가 29.4% 급등. JP 모건과 모건스탠리가 25%, 골드만 삭스가 15% 상승하는 등 금융주가 일제히 반등.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금융 기관 규제방안을 수주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 발표.

전일 발표된 IBM의 양호한 실적전망도 호재로 작용. IBM의 지난 4분기 순익은 전년동기 12% 증가한 44억달러(주당 3.28달러)를 기록. 올해 주당순익은 9.20달러를 예상.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228.10	3.51	0.34	-6.18	-3.42	-8.92	-31.27
S&P(좌)	840.24	4.35	-0.28	-7.32	-3.60	-12.02	-35.88
NASDAQ(우)	1,507.07	4.60	1.17	-5.75	-1.65	-11.18	-34.25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상기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